

59 台灣地區綜合開發計劃概要 대만지구종합개발계획개요

1979년 /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/ 28면 / 02.10-07 형 1979

대만은 일본이 청일전쟁의 결과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은 땅이다. 당초 대만을 FORMASA라고 했는데 이는 스페인 탐험대가 지나가면서 하도 경치가 좋아 한 말, 즉 스페인말로 ‘아름다운 섬’이란 뜻이다.



대만은 우리보다 15년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대만총독부의 법적 지위는 우리나라와 달랐다. 즉 총독은 우리나라가 육군대장으로 보(補)하는 대신 대만은 해군제독으로 임명했다. 조선총독은 내각총리대신 소속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천황 직속인 측면이 있었다.

조선총독은 제령권(制令權),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, 대만총독은 법령 제정권이 없었다. 또한 조선총독은 예산편성권이 있었는데 대만은 그렇지 않았다. 이와 같이 대만은 우리와는 좀 다른 취급을 받고 있었으나 해방은 우리와 같이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했다. 그러나 광복 후 몇 년 안 되어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蔣介石(장개석) 정권이 대만으로 옮겨감으로써 대륙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. 장개석이 이끌고 간 대륙파와는 민족도, 문화도 다른 처지였으나 얼마 전 선주민 측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또다른 일종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.

대만의 면적은 약 3만 5천km²로서 우리나라(남북한)의 6분의 1 수준이고 남한의 3분

의 1에 해당한다. 인구는 대단히 조밀하여 1977년 현재 1,700만 명 규모이나 계획목표연도인 1996년에는 2,235만 6천 명으로 잡고 있다. 한편 도시인구는 1977년의 66.3%에서 1996년의 목표연도에는 83%로 전망하고 있다.

한편 주택건설은 기간 중 318만 4천 호를 건설할 계획인데 정부가 23.6%를 담당하고, 민간기업이 76.4%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. 산업구조는 1977년 현재 농업 12.1%, 공업 45.7%, 서비스 및 교통운수업이 42.2%인데, 1996년에는 농업을 3.9%로 낮추고 공업은 55.3%로 확대하는 반면 서비스 및 교통운수업은 40.8%로 줄인다는 것이다.

권역(圈域)은 북부구역과 중부구역, 남부구역 및 동부구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. 대만국토계획에서 특이한 것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전 국토에 해안선에서 4km 구간을 개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.

